

“One97 Communications (:BSE,NSE*)”

인도 1위 페이먼트 Paytm

Summary

최대 규모 상장
시총 25조원 전망

인도 1위 디지털 페이먼트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Paytm(페이티엠)**을 서비스하는 One97 Communications입니다. 최근 10년 내 인도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시가총액이 2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디지털화와
함께 성장하는
페이먼트 시장

인도의 페이먼트 시장은 **스마트폰 침투율**이 높아지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7%에 불과한 스마트폰 침투율은 5년 뒤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페이먼트 시장 규모도 4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페이티엠은 인도 페이먼트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1위 서비스입니다. 사용자 수는 3억3천명, 사용점포수는 2천만개에 달합니다. 페이티엠은 이번 IPO를 통해 공모자금 약 2조5천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투자비용을 확보한 페이티엠의 더욱 공격적인 비즈니스 확대가 기대됩니다.



출처: Reuters/Francis Mascarenhas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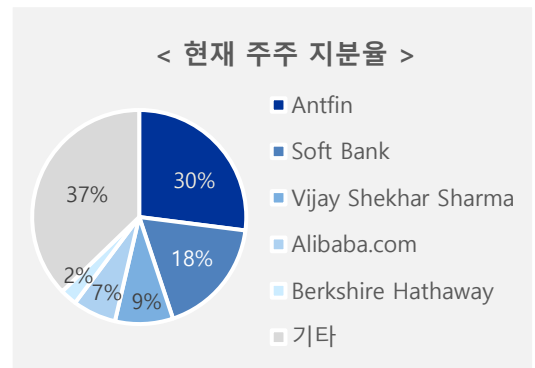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선택

Vijay Shekhar Sharma(비자이 샤르마)는 2000년에 One97 Communications를 설립했습니다. 초기 One97의 비즈니스는 뉴스, 벨소리 등의 모바일 콘텐츠 제공이었습니다. 2010년,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작하며 급성장했습니다.

One97의 주요 투자자는 **Ant Group(앤티그룹)**과 **SoftBank(소프트뱅크)**입니다. 마윈의 앤티그룹은 2015년 투자를 시작해 현재 29.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앤티그룹 산하의 알리바바도 지분 7.2%를 차지합니다. 중국 최대 모바일페이 알리페이를 소유한 앤티그룹은 페이티엠에 운영기술을 이전하고 지분투자를 하며 One97을 주도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2017년, 소프트뱅크의 Vision Fund(비전 펀드)도 One97에 투자해 현재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워렌 버핏의 Berkshire Hathaway(버크셔 해서웨이)는 최초로 인도 회사에 투자해 2.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기회로
시장점유율 상승

2016년 11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부패척결을 위해 **화폐개혁**을 결단했을 때 최대 수혜자는 페이티엠이었습니다. 유통화폐의 86%가 사용금지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체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 페이먼트 이용률이 높아졌고, 인프라도 확대되어 작은 상점에서도 쉽게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 업체였던 페이티엠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지위도 공고해졌습니다.



출처: One97 Communications 투자설명서

* BSE, NSE: 뭄바이에 있는 봄베이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와 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에 동시에 상장될 예정

Business

알리페이 비즈니스 모델의 인도 이식

페이티엠은 2015년 **안트그룹**의 투자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했습니다. 안트그룹은 기술도 전수하며 알리페이로 이미 검증된 페이먼트 모델을 성공적으로 인도에 이식했습니다. 페이티엠도 알리페이처럼 결제수수료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QR코드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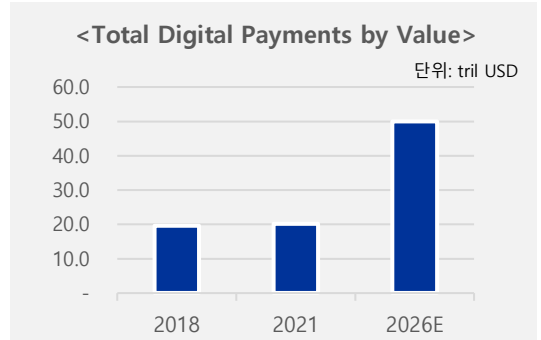
페이먼트 매출 성장

주력 사업인 페이먼트와 금융서비스 매출은 2020년에 2019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인도가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순손실은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전체 매출은 2020년에 2019년 대비 14.6% 감소했는데, 이는 커머스과 클라우드 등 기타 사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USD(천 단위)	2018	2019	2020
매출액	482,296	477,041	429,360
Payment & Financial Services	228,436	256,905	284,174
Commerce & Cloud Services	207,014	150,737	93,395
순이익	(563,391)	(382,932)	(228,517)

성장 시장의 선두 기업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과 높은 GDP 성장률로 인해 인도 페이먼트 이용자수와 거래대금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페이먼트 비즈니스는 거래대금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페이티엠은 GMV*가 62조원이며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이 40%로 시장 1위입니다. 선두 기업으로서 시장이 성장하며 GMV와 매출,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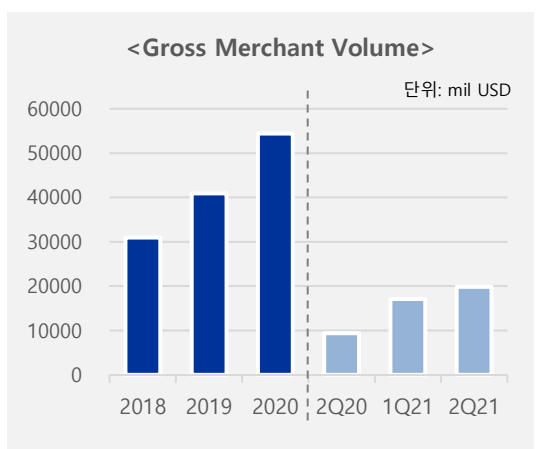


출처: One97 Communications 투자설명서

Key Insight

낮은 수수료율로 이용자수 확대 - 시장 1위 - GMV 증가

페이티엠은 순손실을 감수하고 0.5%의 **낮은 수수료율**을 고집합니다. 사용자수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인도 페이먼트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수수료율에도 사용자수와 GMV의 상승으로 페이먼트 매출은 늘어왔습니다. GMV는 2020년 62조원으로 2019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2021년 2분기 GMV는 2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1%,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에도 GMV 규모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한 페이티엠은 **페이먼트 시장 규모 성장의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출처: One97 Communications 투자설명서

비즈니스 확장 - 금융 - 글로벌

페이티엠은 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에 확보한 3억3천만명의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중앙은행의 첫번째 지불은행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지불, 저축, 이체, 외환송금 등 은행 서비스를 시작해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업과 증권업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일본 페이먼트 1위 기업 Paypay와 제휴하여 싱가포르에 진출했습니다. 2021년 1분기에 3800만명의 이용자가 사용했으며 33조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다른 나라로의 확장도 기대됩니다.

* GMV: 해당 결제 플랫폼을 통해 상거래로 인해 상인들이 벌어들인 금액의 총합. 거래대금.